

###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중서 박사가 쓴 '불교와 교육'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음악은 90점, 체육은 80점. 한 학생이 받은 점수의 평균은 85점이다. 85점짜리 학생, 이런 계산으로 과연 그 학생을 올바르게 평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학교교육은 이런 방법을 안고 온 지 이미 오래다. 개성의 획일화, 점수화, 서열화도 이미 우리 교육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을 크게 저해시켜 왔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 “교육의 미래 불교서 찾자”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50'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깔려 있는 인간 존중 사상이 결국 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기 성취의욕을 스스로 발현해 낼 수 있는 미래형 교육관임을 보여준다.

교육개혁위원장을 지냈고, 교육에 평생을 바쳐 온 김중서 박사(78,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이 책은 평생에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애써온 김박사의 교육관과 불교의 교육이념이 만나 빛어낸 미래 교육의 지침서이다. 현대불교신문 97년 10월 1일자(제144호)부터 98년 4월 29일자(제172호)까지 '불교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어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김박사는 이 책의 두번째 이야기 '대기설법, 눈높이 교육의 맨처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처님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었던 가르침을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한다. 이를 교육적 측면에

서 본다면 부처님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스승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삼초이목(三草二木)'의 비유를 보자. 많은 수목의 큰 것, 작은 것은 그 성질에 따라 저마다 받아들이는 물기가 달라서 동일한 구름에 의하여 비를 맞지만 각각의 종류, 성질에 따라 적합하게 자랄 수가 있다. '오늘의 교육은' 각 종류의 성질에 적합하

조를 기본 원리로 한 '자기 충족'과 성취 동기와 자아실현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현상적 유아독존'의 절대적 가치야말로 21세기를 열어가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념임을 증명해 보인다.

또한 정연한 이론을 펴는 중에도 경험을 토대로 한 문제중심의 접근방식과 평이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문장들은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롭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마음에 드는 제목 어느 것이나 골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김중서 박사는 책 서문에서 "부처님은 이미 2천5백년전 오늘날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셨다"며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며 이 책의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중서 박사는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발간을 기념해 6월30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21세기에 대응하는 불교 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학습동기 유발·인성교육 등 불교와 접목 해법 제시

김중서 박사

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라도록 강요하고 있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이 오늘날 교육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삼매, 자아 실현의 최고 형태' '어린이를 어린답게 키우자' 등 스물 일곱 가지 이야기 역시 학습동기 유발, 교육환경, 인성교육, 청소년 문제 등 교육과 관련한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불교의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일체유심

### 불교경전의 이해 이재창 지음

### 아함경·금강경 등 47경전 '한권에'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현대불교문화연구원장인 이재창 교수가 펴낸 <불교 경전의 이해>는 종류와 분량이 방대한 경전을 이해하기 쉽게 내용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제1편 총론에서는 경전의 성립과정부터 경전의 구성과 조직, 경전의 어계(語系), 한역경전, 고려대장경 등 '불교 경전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모든 의문을 풀어내고 있다. 제2편 각론에서는 아함경 법구경 등 원시경전 18종류와 대반야경, 금강경 등 대승경전 29종류를 소개했다. 각 경전에 대해서는 개요와 함께 역본, 주석서 등도 서울대 책을 보다가 어떤 경 이름이 나왔을 때, 그 경전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충분하다. <경학사, 9천원>

### 환제의 책

### 산거일지 김달진 지음

###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덕목과 가치



"나는 오늘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머리를 깎아 버렸다... 그리고 장삼을 입고 합장해 보았다. 겸손과 하심, 얼마나 편안하고 화평한 심경인가."

<산거일지>는 1989년 세상을 떠난 뛰어난 불교학자이자 문학자인 율하 김달진 선생이 남긴 유고를 수습한 산문집. 인생의 참된 의미와 선(禪)적 이상, 그리고 법문에 대한 깊은 통찰과 탁월한 인식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1부 '산거일기'는 한때의 입산수도생활의 감회 등 일상으로부터 평범하지만 심오한 삶의 단상들을 길어 올린다. 2부 '삶을 위한 명상'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덕목과 가치들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이 단문으로 살아 꿈틀거린다. <문학동네, 7천원>

### 성타스님의 17명이 쓴 '인물중국선종사 下 명·청대 선사와 만남'

5종가종의 종장들로부터 명대와 청대의 선종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들이 한국선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조명한 <인물중국선종사 下>(불교영상회보사 편)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94년 보리달 마이후 현사사비까지 선종인물의 법맥을 중심으로 32인의 사상을 정리한 <인물중국선종사 上>에 이어 중국 선종사의 대표적 선승들을 망라했다. 임제, 조동, 운문, 위양, 법안 등 5가7종의 종장들에서부터 명대의 마지막 선승 우익자육까지 21명 선사들의 삶을 재구성했다. 각각의 필자들은 이들 선사들이 남긴 공안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상과 생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선의 전통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권에는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송찬우교사(중앙암가대) 이상현(민족문화추진회 국역위원)씨 등 17명이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상·하권을 합쳐 국내 학자와 학술 46명이 동원됐다.

한명우 기자



### 비구니 승가의 어제와 오늘

### 조계종 교육원 '비구니 승가' 펴내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율장 조문이 어떤 경로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핀 책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이 펴낸 <비구니 승가>는 스리랑카 출신 학자 모한 위자이라트나의 불어판 연구서 <비구니 승가의 탄생과 변화>를 번역한 책. 초기 비구니 승가의 탄생과정에서부터 비구니 승가대중의 출가배경과 당시 사회적 관습, 비구니 득도에 따른 자격과 조건, 비구니 승가에 있어서 비구의 역할 등을 서술하면서 은사 비구니와 상좌 비구니와의 관계와 예법, 해탈의 경지와 그 과정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인도의 각 부파 불교의 여성들은 기원전 3세기에 스리랑카로 건너가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고 이국 여성들에게 율장과 경장을 가르쳤으며, 비구니 승가는 수세기 동안 아주 빠르게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왕궁의 여성들이 승가에 들어



오다보니 비구니 승가는 자연히 왕들에 의해 보호를 받았으며, 10세기까지 스리랑카에 비구니 승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여러 비문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그러나 초기에 제정된 팔경계에 따라 비구니 승가가 비구 승가에 종속되어야만 했던 이유로 인해 비구니 승가는 각 부파로 분리된 비구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비구들의 비구니 승가를 무시하는 태도도 비구니 승가 물락의 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구니 승가에도 비구 승가와 마찬가지로 율장이 있었다. 율장에서 어떤 조문을 제정하기 전에 먼저, 그 제정에 필요했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비구니 율장의 원전인 '바리제독차(波羅提木叉)'는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각 조문에는 어떤 종류의 벌칙이 내려질 것인지와 그렇지 않은 상황이 기술돼 있다.

한명우 기자



### '한국불교미술' '한국미술사 101장면'

### 한국미술 5천년 시간여행

최근 나란히 출간된 <한국불교미술>(문예출판사)과 <한국미술사 101장면>(가람기획)은 한국미술의 정수를 전문가가 쉽게 설명,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한국미술사학계의 원로 진흥섭교수(연세대 용재석좌)의 역저 <한국불교미술>은 독특한 세계를 구축했던 불교미술품들을 시대별·분야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목탑을 번안한 석탑건립으로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줬던 탑과, 불교도상을 중시하면서 도 한국인에게 풍기는 정감을 강조했던 불상, 정상에 음표를 달고 중심에 넓은 공간을 남기며 무한한 함축을 내포하고 있는 범종 등 우리 불교미술품들을 통해 한국인의 미적감각과 예술혼을 맡겨 자랑하고 있다.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임두빈씨(한국미술학미술사 연구소 대표)의 <한국미술사 101장면>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에서 삼국·고려시대의 불교미술을 거쳐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1백1점의 주요작품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임씨가 직접 그린 문화현장의 생생한 풍경그림 등 2백20여점의 사진·그림자료는 한국미술사 여행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왜 그 작품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미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한국 미술사 서술이 조선시대에 그친 점에서 벗어나 근·현대미술에까지 서술폭을 넓히고 있어 관심을 끈다.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박정	동쪽나라
2	깨달음으로 가는 울버린 순서	조철	여시아문
3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윤순	신우당
6	가슴을 찢는 부처님 말씀 3가지	성우·재현	민족사
7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훈출판사
8	밀교강좌	혜정	출판시대
9	불교입문	조계종원장부	조계종출판사
10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구입문의:(02)737-0695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 사할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산!
-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여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차,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 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5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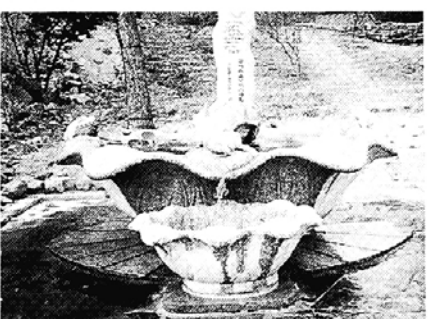
※ 현금가 : ₩ 130,000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몰리 ☎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년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